고품격 주거 단지 '승원 팰리체' 전국으로 뻗어간다

아파트 브랜드 '승원팰리체'를 론칭하면서 주택 사업에 뛰어든 승원건설그룹(회장 김승구)이 지역을 넘어서며 전국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승원건설그룹은 2001년 1월 설립돼 올해 21주년을 맞은 승원종합건설을 비롯해 에스원종합건설(주), 라온주택(주), 승원팰리체(주), 에스원건설(주), 하당팰리체(주), 센트럴개발(주), 서광건설(주)등 8개의 건설사로 형성돼 있다. 토목과 건축에 이어 2014년 주택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하면서 '승원팰리체'라는 간판을 내건 뒤 전국으로 사업을 키워가며 주택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승원종합건설은 지난 8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들어설 '홍성 승원팰리체' 분양에 성공했다. 광주·전남지역을 벗어난 최초의 주택사업인 탓에 낯선데다, 아파트의 분양성과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달리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340세대 모집에 무려 8만4591건의 청약이 접수돼 전체평균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견본주택 문을 연 지 불과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이 완료된 것이다.

승원건설그룹 측은 승원팰리체의 선풍적인 인기에 대해 명품 학군을 자랑하는 핵심적인 입지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340세대 전 세대 모두 84㎡ 중형의 4-베이(bay) 방식으로 공급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휘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으로, 홈 모니터링 과 가전·난방·방범·조명 제어, 택배 알림, 엘리베이 터 호출 등 사물인터넷(IoT) 기능까지 적용해 편 의성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방 크기의 넓은 드레스 룸과 부엌 펜트리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조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동일 평형 어느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배치 공간이 인기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지역을 넘어 처음 타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브랜드 '승원팰리체'의 전국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에스원종합건설 등 8개 계열사 토목·건축 등 관급사업 중심서 2014년부터 주택 분야 진출

국가 대표브랜드 대상 등 수상 내실·신뢰·투명 경영 원칙 김승구 회장 '아너소사이어티'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 참여

앞서 '승원팰리체'라는 브랜드는 차곡차곡 인지 도를 쌓아왔다. 올 6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2021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지난 7월에는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가 '2021 상반기 한경주거문화 대상' 시 상식에서 환경친화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승원건설그룹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승원종합건설은 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 사옥과 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신안군 중부 권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진도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곡성 상수도 보조수원 개발사업 청계면 복길선착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사업을 중 심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건설업의 외연 확장과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주택사업에 뛰어 들었다.

2014년에 주택사업의 본격회를 선언하며 브랜드 '승원팰리제'를 선보인 이후에는 진도를 시작으로 해남, 목포, 무안, 고흥 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명품 아파트를 분양·임대해왔다. 이어 또다시 충남 홍성과 서천 장항, 전북 익산 등 전국으로 주택사업을 확대하면서 주택업계에서의 존재감을 굳혀가고 있다.

◇삶의 행복을 추구하다=승원건설그룹은 단순 히 매출·도급액을 늘려 외형을 키우는 방식을 지양 하고, 내실경영과 신뢰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존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승원건설그룹의 아파트 브랜드 '승원팰리체'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외연을 키워나가며 주택업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승원건설그룹이 지난달 2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뤄낸 충남의 '홍성 승원팰리체'의 조감도.

김승구 승원건설그룹 회장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내실을 다져 '내실경영'을 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게 됐다"며 "승원건설그룹의 기반은 '신용'이자 나의 신념"이라고말했다.

어려울 때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신용을 믿고 도움을 준 협력업체들과 20여 년째 신뢰관계를 유지, 덩달아 함께 발전해온 것을 보면서 '신뢰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자주 깨닫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도(正道)를 걸으며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승원건설그룹은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신뢰기업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당좌거래도 하지 않고, 매월 말일 결제보다 25일 결제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번 추석명절 역시 기일에 앞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주택사업에 뛰어든 이후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기업으로서의 사 회적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올해 6월 진도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의 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가전 제품을 후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성실히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 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더불어 사는 가치창 조'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과 인재육 성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며 지 역사회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승구 회장은 "이탈리아어로 행복을 의미하는 '팰리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정성과 세심한 배려 를 통해 주거공간의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 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 삶의 중요한 '행복공간'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진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명작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승원팰리체'가 '2021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뒤 김승구(가운데) 회장과 승원종 합건설 김준원(왼쪽 두번째)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상반기 한경주거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임직원들이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의 환경친화부문 대상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바다가 한눈에…'고흥 녹동 승원팰리체' 10월 분양

84㎡ 192세대 2023년 완공 초·중·고 도보로 통학 가능 상권 밀집·교통 여건도 우수

승원건설그룹은 오는 10월 '고흥 녹동 승원팰 리체'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고흥 녹동 승원팰리체는 지하 1층, 지상 12 층, 4개동 192세대 규모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612-13번지에 오는 2023년 말 들어설 예정이다. 전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정남향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전용면적 84㎡ 중형 타입과 4베이(Bay) 혁신 설계 적용으로 채광과 일조량을 극대화해 통풍이 매우 우수하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고흥 녹동 승원팰리체 주변으로는 녹동 초와 녹동중, 녹동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주거 트랜드로 꼽히는 초등학교 안심통학이 가능한 입지조건도 갖췄다.

또 인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권이 밀집돼 있 어 근거리 '생활쇼핑'이 가능하고, 녹동시외버 스터미널과 녹동항도 인접해 교통여건도 우수 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단지 주변에 들어서있는 건물들이 저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세대가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고흥 녹동 승원팰리체 주택전시관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684번지 일대에 10월 중문을 열예정이며, 주택전시관 개관과 동시에 계약을 받는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l표선화들 동해 가능하나.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의료기관 폐기물 수집·운반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